

報道資料

題目 : 기업자금사정 완화방안(금융정책협의회 논의 내용)

主要內容

□ 정부는 11월 17일 오전 8:00 은행회관에서 이 정재 재경부 차관은 정 건용 금감위 부위원장, 박 철 한은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업자금사정을 점검하고 별첨과 같이 기업자금사정 완화방안을 논의하였음

* 별첨 : 금융정책협의회 논의 내용

報道資料 生產課 : 金融政策局 金融政策課 TEL : 500-5341 ~ 3

財政經濟部 公報官室

기업자금사정 완화방안

□ 상황인식

- 금년 11월부터 내년도 1/4분기 말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가 원활히 차환 발행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에 긴요하고
- 지난 11.3일 채권 은행단이 회생 가능하다고 판단한 235개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는 한편
- 퇴출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도 실효성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

□ 기업자금사정 완화 방안

- ① 내년 1/4분기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(약 30조원)중 4대 그룹 발행 회사채(약 14조원)의 경우는 자체해결능력이 있으므로 나머지 16조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
- 채권형펀드 10조원 추가 조성 추진(채산예금·보험 3조원, 연·기금 등 2조원,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 5조원)
 - 12월 중 5조원, 내년 1월 중 5조원
 - Primary CBO 제도의 신축적 운용
 - 채권형펀드의 Primary CBO 편입비율 상향조정 추진
 - 중견 대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Primary CBO의 기업별·계열별 편입한도를 자금수요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운용

② 회생가능한 235개 기업체에 대해서는 채권 은행단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금융감독원에서 철저히 점검

- 특히 해당기업의 회사채·CP 만기도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치
- 워크아웃 기업체 등에 대해 CRV등을 활용한 자금지원 확대 방안 검토
- 다음 주말까지 제2금융권을 포함한 확대 채권단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방안 확정

③ 퇴출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기수립된 지원대책이 실효성있게 이루어지도록 점검

- 특례보증과 연계하여 협력업체에 대해 신규자금 지원 확대
- 할인어음 또는 당좌대출한도 확대
- 협력업체의 기할인된 상업어음은 일반대출로 전환
- 협력업체의 기존 대출금 만기시 상환기일 연장 등

※ 위 대출 취급 임직원에 대한 면책조치

- ④ 주채권은행 등이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유동성을
한국은행에서 탄력적인 유동성 조절을 통해 적극 지원
- 자금 여유가 있는 소매금융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흡수하여
기업금융은행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금융의 활성화 유도
 - 협력업체지원을 위한 저리(3%)의 자금대출제도 적극 활용
 -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총액대출
한도중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점별한도(총 2.1조원)를 증액

보도자료

협력업체 금융지원 상황

2000. 11. 17

재정경제부

(금융시장 및 협력업체 대책반)

1. 협력업체 금융지원 대책의 추진상황 및 실적

- 11.3 부실기업 판정으로 인한 협력업체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두 차례(11.3, 11.10)에 걸쳐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, 현재 각 기관이 필요한 내부조치를 마치고 시행중
- 신용보증기관이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실시(11.8일 시행, 11.14일 업체당 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)
 - 금감원이 금융기관 일선 창구에 협력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토록하는 협조공문 시행(11.8일, 11.10일)
 - * 협조요청 사항 : 신규 어음할인, 금융기관 보유 어음의 환매 자체, 기존대출금의 만기연장, 보유어음 만기시 일반대출 전환, 법정관리대상 업체 발행 구어음의 신어음 교환
 - 중소기업청의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(11.8일 시행)
 - 한은의 저리(3%) 총액대출한도 배정(11.4일 이후 은행의 신규 어음할인 실적을 다음달 총액한도배정시부터 반영되도록 기조치)

*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

세부내역	상담실적	11.15일 현재 실적
특례보증	65억원(34건)	32억 원(14건) * 신청 17억 원(7건)
은행 만기연장(대환)	-	761억 원(207건)
신규자금 지원	-	584억 원(207건)
상업어음의 일반 대출전환		17억 원(15건)
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	상담 338억원(126건)	신청 88억 원(22건) * 신청후 지원까지 약 2주 소요

* 자료 : 금감원, 중기청, 신보, 기보 * 특례보증,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 11.16일 현재 실적

2. 향후 대응방향

- 은행의 신규자금지원 및 만기연장실적이 1,300억원 수준에 달하는 등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은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,
 - 전반적으로는 협력업체의 자금애로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
- 따라서,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점검을 강화
 -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일선 창구에서 협력업체 지원내용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
 - 신용보증기관, 중소기업청은 현재 접수·상담중인件에 대해 신속히 자금을 지원
 - 또한, 신어음 교부 등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법원의 조속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
⇒ 일선 금융창구에서의 협력업체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현황의 일일점검체계 가동